

부모의 관여가 중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선혜연(宣惠娟)**

황매향(黃梅香)***

정애경(鄭愛敬)****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부모의 관여 행동이 중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아가 미국 부모 및 청소년들의 특성과 비교하여 논의하는 데 있다. 자녀의 다양한 발달적 특성이 형성되는 데 있어 주요 사회적 환경요인인 부모는 청소년들의 학업동기 형성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부모의 어떤 관여행동이 청소년들의 학업동기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이하 KELS) 1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모의 관여 행동이 중학생 자녀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KELS의 모태가 되었던 미국의 ELS2002 자료를 분석하여 동일한 주제를 연구했던 미국 연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특성들의 문화간 비교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부모의 관여 행동 대부분은 중학생 자녀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비록 설명량은 작지만, 부모의 다양한 관여 행동 중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이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가 자녀의 학업적 자아효능감 및 내적 동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변인임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국의 경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러한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부모의 관여 행동과 청소년들의 학업동기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부모 관여, 관여 행동, 학업적 자아효능감, 내적 동기

* 이 연구의 일부는 제4회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함.

** 교신저자,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전임강사

*** 경인교육대학교 조교수

****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박사과정생

I. 서론

부모는 자녀의 다양한 발달적 특성이 형성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igner, 2006). 인간 행동 및 학습에 대한 사회인지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모든 기능은 사회적 시스템을 기초로 형성되며(Bandura, 2005), 이러한 사회환경적 요인들은 개인의 생각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Schunk & Zimmerman, 2006).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 주요 사회 환경적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적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부모의 영향변인을 살펴보는 것은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다. 그간 자녀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부모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대부분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 자아개념, 태도, 가치관 및 행동수행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 주었다(박점숙, 2003; 박현정, 1998; 임상옥, 2003; 정미라, 원유미, 2001; 최귀림, 2000). 그런데 최근 자녀의 발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행동을 단순히 자녀양육태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특정 발달영역에서 부모의 구체적인 관여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박외자, 2010; 박혜영, 2010; 선혜연, 김계현, 2008; Fan & Williams, 2010; Phillips, 2002). 일반적으로 부모의 관여 행동은 '자녀가 학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모가 참여하는 것(Fishel & Ramirez, 2005)'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다양한 부모의 행동 및 실재를 포함하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Epstein, 1995; Grolnick & Slowiaczek, 1994), 청소년의 발달 영역별로 부모 관여 행동 구성요소를 확인하는 연구를 통해 부모 관여 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정의가 시도되고 있다(Epstein, 1995; Fan, 2001; Grolnick & Slowiaczek, 1994).

자녀의 다양한 발달적 특성에 부모의 관여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학업적 발달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업적 발달 영역에서 대부분의 경험적인 연구(김종백, 김준엽, 2009; 변수용, 김경근, 2008; 신중호, 진성조, 김연제, 2010; Domina, 2005; Powell-Smith, Stoner, Shinn, & Good, 2000; Sheldon & Epstein, 2005; Sirvani, 2007)들은 주로 부모의 관여 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밝혀주었는데, 부모의 다양한 관여 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Domina, 2005; Fan, 2001; Fan & Chen, 2001; Jeynes, 2005). 예컨대 양질의 교사-부모 상호작용은 자녀의 학업 행동 및 성취의 향상을 예언하는데 반해 교사-부모의 상호작용의 양은 자녀의 학업 행동 및 성취의 하락을 예언하였다(Izzo, Weissberg, Kaspro, & Fendrich, 1999). 이처럼 자녀의 학업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관여는 구체적인 부모의 관여 행동별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예언하는 주요 변인으로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학업동기에서도 부

모의 관여 행동의 영향을 밝히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제한적인데, Fan과 Williams(201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Fan과 Williams(2010)는 미국의 전국규모 종단자료인 ELS2002(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2002)의 문항을 사용하여 부모의 구체적인 관여행동이 미국 청소년들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얼마나 높은 교육적 기대를 가지는가와 학교가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협조하는가는 학생들의 학습동기 요인(수학 자기효능감, 영어 자기효능감, 몰입, 수학 내적동기, 영어 내적동기)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조언은 영어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내적 동기를 높여줄 수 있고, 가정의 TV 시청 규칙은 수학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내적 동기를 높여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미국 전역의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로 분석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는 상당한 일반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학생들에게도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찰은 여전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서구의 이론이나 연구결과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와 문화가 가진 독특성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자체 내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집단의 집단 차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동양문화와 서양문화의 차이가 학교 장면이나 학생들의 학교적응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문화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동서양 문화 차이 연구나 국내 토착심리학적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예, 김의철, 2004; 박영신, 2004; Farver & Lee-Shin, 2000; Farver, Narang, & Bhadha, 2002; Russell, Crockett, & Chao, R., 2010; Uba, 1994; Ying, Coombs, & Lee, 1999). 따라서 부모의 관여가 학생들의 동기 변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한국의 가정에서는 미국의 가정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양에 비해 동양의 부모-자녀 관계가 보다 밀접하고 의존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부모의 관여가 학생들의 동기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덜 될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임영수, 2003).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이 갖는 부모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존경의 마음이 학습동기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박영신, 김의철, 정갑순, 2004). 그러나 이런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부모에 대한 죄송한 마음, 부모에 대한 존경 등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정도를 보여주는 변인이긴 하지만 부모 관여 자체를 측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부모 관여에 대한 연구의 경우, 부모가 보고하는 관여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관여에 대한 연구들(김종덕, 2001; 신중호, 진성조, 김연제, 2010; 윤미선, 홍창용, 2006; 이미옥, 2003; 임은미, 1998; 조혜영, 2008)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선행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부모들의 관여가 학생들의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과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종단자료인 ELS2002와 거의 유사한 문항을 가진 한국 교육종단조사(KELS) 자료를 분석하여,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보고하는 구체적인 부모 관여 행동이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 분석결과를 유사한 미국의 연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학업동기와 부모의 관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관여 행동과 중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 및 내적 동기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이하 KELS) 자료를 이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를 미국의 연구결과(Fan & Williams, 2010)와 비교하기 위하여 미국의 2002년 교육종단연구(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2002, 이하 ELS2002)의 문항을 기초로 개발한 KELS 1차년도 문항들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분석 자료는 KELS 1차년도 자료 중 학생질문지와 학부모질문지이다. 학생질문지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검사지의 하위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으며, 학부모질문지는 부모의 관여 행동과 관련된 하위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KELS 1차년도 자료는 총 150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6908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이 중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학부모 설문지의 경우 응답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여 분석한 결과 총 6288개의 사례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총 6288명의 학생 중 남학생은 3233명(51.4%), 여학생은 3055명(48.6%)이었다. 총 6288명의 부모 중 아버지가 설문에 응답한 경우는 1379명(21.9%), 어머니가 응답한 경우는 4909명(78.1%)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44.18세였으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0.66세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KELS 1차년도 자료의 부모의 관여 행동과 중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 및 내적 동기 관련 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문항들은 미국 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Fan과 Williams(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ELS2002 문항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이 문항들은 미국 선

행연구에서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준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예: Fan, 2001; Fan & Williams, 2010; Hill & Craft, 2003; Yan & Lin, 2005). 해당 영역에 따라 각 문항들은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되어 번안되거나 필요에 따라 추가되었다.

1) 부모의 관여행동 문항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관여 행동을 다각도로 검토하기 위하여 KELS 1차년도 자료 중 해당 문항을 총 3개의 상위 영역과 6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상위 영역은 학교교육, 가정생활, 부모의 교육적 기대 등 3개로 구성되었으며, 하위 영역은 학교와 부모간의 연락(학교교육),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연락(학교교육), 학부모 단체활동 참여(학교교육), 가족규칙(가정생활),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가정생활),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부모의 교육적 기대) 등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학교교육 영역은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하는 행동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있다. 학교와 부모간의 연락은 총 6문항으로 ①학교의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 ②졸업 후 학생의 진로(상담), ③집에서 학생지도에 관한 조언에 관하여 부모와 학교가 각각 시도한 연락의 빈도를 묻는 두 쌍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없다', '1~2번', '3~4번', '5번 이상'의 4점 척도로 표기되며, 응답 결과는 연락 빈도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합산되었다. 학교와 부모간의 연락 문항들의 내적신뢰도(Cronbach's alpha)는 Fan과 Williams(2010)의 연구에서는 학교로부터의 연락이 .65, 부모의 연락이 .7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6문항 전체가 .46으로 나타났다.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연락은 총 4문항으로 ①학생의 불성실한 행동, ②학교에서의 문제행동에 관하여 부모와 학교가 각각 시도한 연락의 빈도를 묻는 두 쌍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응답은 '없다', '1~2번', '3~4번', '5번 이상'의 4점 척도로 표기되며, 응답결과는 연락 빈도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합산되었다. 학생 문제행동에 대한 연락 문항들의 내적신뢰도(Cronbach's alpha)는 Fan과 Williams(2010)의 연구에서는 .76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52로 나타났다. 학부모 단체활동 참여는 학부모가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항목은 부모가 '학부모 단체 가입', '학부모 단체 모임에 참가', '학부모 단체 활동에 참여', '자원봉사 활동', '다른 학부모와 학교 밖 다른 단체에 가입' 등 5가지 세부 활동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응답결과는 부모가 '그렇다'라고 표기한 문항의 총 개수로 분석되었다. 이 문항들의 내적신뢰도(Cronbach's alpha)는 Fan과 Williams(2010)의 연구에서는 .72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7로 나타났다.

가정생활 영역은 부모가 자녀의 가족 내 생활과 관련하여 하는 행동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있다. 가족규칙은 총 5문항으로 자녀의 ①일정한 성적 유지, ②숙제하기, ③집안일 돕기, ④텔

레비전 보기, ⑤컴퓨터하기에 관하여 가정 내 규칙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은 '없다', '있다'로 표기되며, 응답결과는 부모가 '있다'라고 표기한 문항의 총 개수로 분석되었다. 가족규칙 문항들의 내적신뢰도(Cronbach's alpha)는 Fan과 Williams(2010)의 연구에서는 컴퓨터하기를 제외한 4개의 문항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수준의 계수가 산출되지 않아 문항 각각에 대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67으로 나타났으며, 영역 전체점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은 부모가 자녀와 어떤 활동들을 함께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항목은 부모가 일 년 동안 자녀와 함께 '학교활동에 참가', '학교 밖에서 콘서트, 연극, 영화 관람', '여행이나 휴가를 감', '쇼핑', '함께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냄' 등 12가지 세부 활동에 대하여 '없다', '1~2번', '3~4번', '5번 이상'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응답 결과는 활동 빈도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합산되었다. 이 영역 문항의 내적신뢰도(Cronbach's alpha)는 Fan과 Williams(2010)의 연구에서는 7가지 세부 활동에 대하여 .76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적 기대 영역은 부모가 향후 자녀의 교육 및 학력(學歷)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이 영역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 수준을 현재 중학생인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기를 원하는지 묻는 1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2년제)', '대학교', '대학원석사과정', '대학원 박사과정',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2) 중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 문항

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 문항은 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Pintrich & DeGroot, 1990)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특정 과목에 대한 학생의 성공적인 수행에 관한 인식을 측정하고 있다. KELS 1차년도 자료에서는 수학, 영어, 국어 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을 각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학생은 각 교과별로 ①교과서에 있는 어려운 내용도 이해할 자신이 있다, ②선생님이 제시한 복잡한 내용을 이해할 자신이 있다, ③과제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④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⑤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능숙하게 사용할 자신이 있다 등 5개의 서술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자신의 교과목에 대한 효능감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각 과목별 문항의 내적신뢰도(Cronbach's alpha)는 Fan과 Williams(2010)의 연구에서는 영어와 수학 각각 .93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학 .89, 영어 .91, 국어 .88로 나타났다.

3) 중학생의 내적 동기 문항

학생의 내적 동기 문항은 Self-report Scale of Intrinsic Versus Extrinsic Orientation(Harter, 1981)에서 학생의 교과관련활동에 관한 내적 동기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KELS 1차년도 자료에서는 수학, 영어, 국어 과목에 대한 학생의 내적동기를 각 3문항, 3문항, 2문항의 총 8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학생은 수학과 영어 과목에 대해 각각 ①해당 과목을 공부할 때, 대개 깊이 빠져든다, ②해당 과목은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③해당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으므로 이 과목을 포기하지 않겠다 등 3개의 서술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자신의 수학과 영어 교과에 대한 동기수준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국어의 경우, ①책을 읽는 일이 재미있어서 중단하고 싶지 않다, ②틈틈이 책을 읽는다 등 2개의 서술에 대해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4점 평정척도로 자신의 국어교과에 대한 동기수준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각 해당과목 문항들의 내적신뢰도(Cronbach's alpha)는 Fan과 Williams(2010)의 연구에서는 영어와 수학 각각 .87, .67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수학 .79, 영어 .84, 국어 .80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주요 변인과 분석에 사용된 해당 문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분석변수와 해당 문항

대상	상위영역	문항내용	한국교육종단연구 문항
부모 관여	학교교육	학교와 부모간의 연락	34-2, 34-3, 34-8, 35-2, 35-3, 35-8
		학생문제행동에 대한 연락	34-1, 34-5, 35-1, 35-5
	가정생활	학부모 단체 활동 참여	36번(총5문항)
		가족규칙	27번(총5문항)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29번(총12문항)
부모의 교육적 기대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12번(총1문항)	
청소년 특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교과(수학)	4번(1-5문항)
		교과(영어)	4번(6-10문항)
		교과(국어)	4번(11-15문항)
	내적 동기	내재적 동기(수학)	2번(1-3문항)
		내재적 동기(영어)	2번(4-6문항)
		내재적 동기(국어)	2번(7-8문항)

자료: 제1차 한국교육종단연구(2005년) 데이터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관여 행동과 중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 및 내적 동기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관여행동과 관련된 변수들과 학업적 자아효능감 및 내적 동기의 변인에 관련된 변수들의 종합적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부모의 관여행동이 청소년들의 학업적 자아효능감의 변량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동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모의 관여 행동 변수들을 주요 설명변수로 한 모형을 중다회귀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이러한 통계분석을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 15.0이 사용되었다.

III. 연구결과

1. 부모의 관여 행동

<표 2>는 부모의 관여 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범위 및 최빈치를 정리한 것이다. 학교교육에 관한 부모의 관여 행동에 대한 분석 결과, 학교와 부모간의 연락,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락은 평균적으로 연 1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학교부모: $M=.76$, $SD=1.50$, 문제행동: $M=.15$, $SD=.50$), 부모는 평균적으로 학부모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M=.92$, $SD=1.32$). 또한 가정생활에 관한 부모의 관여 행동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가정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규칙 중 3개 이상의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M=3.03$, $SD=1.59$), 약 23%의 가정이 다섯 가지 규칙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12개의 활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모와 자녀는 평균적으로 약 연 19회의 활동을 함께 하는 것($M=19.20$, $SD=10.72$)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에 있어 부모들은 평균적으로 자녀가 대학교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M=4.50$, $SD= 1.09$).

<표 2> 부모 관여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M (SD)	범위(가능범위)	최빈치
학교/부모간 연락	0.76 (1.50)	0-15(0-30)	0
학생문제행동 연락	0.15 (.50)	0-6(0-20)	0
학부모 단체 활동 참여	0.91 (1.32)	0-5(0-5)	0
가족규칙	3.03 (1.59)	0-5(0-5)	5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19.20 (10.72)	0-60(0-60)	12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4.50 (1.09)	0-6(0-6)	4*

주: * 대학교 수준의 교육

2. 중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

<표 3>에 따르면, 연구 대상이 된 중학생들은 수학(M=2.61, SD=.64), 영어(M=2.60, SD=.71), 국어(M=2.78, SD=.67)과목에서 중간수준의 학업적 자아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내적동기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수학: M=2.64, SD=.67, 영어: M=2.68, SD=.72, 국어; M=2.72, SD=.77).

<표 3> 중학생의 학업적 자아효능감 및 내적동기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M (SD)	범위(가능범위)	최빈치
학업적 자아효능감	수학	2.61 (.64)	1-4(1-4)	3
	영어	2.60 (.71)	1-4(1-4)	2
	국어	2.78 (.60)	1-4(1-4)	3
내적동기	수학	2.64 (.67)	1-4(1-4)	3
	영어	2.68 (.72)	1-4(1-4)	3
	국어	2.72 (.77)	1-4(1-4)	3

3. 부모의 관여 행동과 학생 자녀 특성 간의 관계

부모의 관여 행동과 청소년 특성 변수들의 상관은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락을 제외한 부모의 모든 관여 행동들(부모와 학교간의 연락, 학부모 단체 참여 활동, 가족규칙, 자녀와의 여가활동, 학업수준에 대한 기대)은 각 과목의 학업효능감과 내적동기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부모의 관여행동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문제행동에 대한 학교와의 연락을 제외하고는 모든 관여행동들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연락과 학부모 단체활동($r=.25, p<.01$), 학부모 단체활동과 가족규칙($r=.27, p<.01$), 가족규칙과 부모기대($r=.25, p<.01$)는 다른 관여 행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모 관여행동과 학생의 성별 간 상관을 보았을 때, 남학생의 부모가 여학생의 부모에 비해 더 잦은 학교연락($r=-.07, p<.01$), 문제행동에 관한 연락($r=-.10, p<.01$), 학부모 단체 활동($r=-.05, p<.01$), 자녀와의 활동($r=-.05, p<.01$)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불어 자녀의 교육에 대해 높은 기대($r=-.08, p<.01$)를 가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여학생의 부모는 남학생의 부모에 비해 가족규칙을 더 많이 만드는 경향($r=.04, p<.01$)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더불어 부모의 성별과 관여 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학교와의 연락을 취하거나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락을 취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관여 행동에서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관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부모 단체

〈표 4〉 주요 변인 간 상관

	수학효능	영어효능	국어효능	수학동기	영어동기	국어동기	학교연락	문제연락	학부모 단체	가족규칙	자녀와 활동	부모 기대	성별
영어효능	0.39**												
국어효능	0.29**	0.32**											
수학동기	0.68**	0.22**	0.14**										
영어동기	0.25**	0.72**	0.20**	0.34**									
국어동기	0.19**	0.21**	0.34**	0.16**	0.19**								
학교연락	0.08**	0.08**	0.03**	0.07**	0.06**	0.08**							
문제연락	-0.03**	0.01	-0.02	-0.04**	-0.03**	-0.01	0.12**						
학부모단체	0.16**	0.14**	0.06**	0.11**	0.10**	0.07**	0.25**	0.02					
가족규칙	0.19**	0.21**	0.11**	0.16**	0.17**	0.13**	0.20**	0.01	0.27**				
자녀와 활동	0.09**	0.07**	0.04**	0.08**	0.05**	0.06**	0.10**	0.04**	0.09**	0.22**			
부모기대	0.20**	0.18**	0.07**	0.16**	0.15**	0.11**	0.12**	0.01	0.17**	0.25**	0.11**		
학생성별 ^a	-0.15**	0.01	0.03**	-0.11**	0.04**	0.01	-0.07**	-0.10**	-0.05**	0.04**	-0.05**	-0.08**	
부모성별 ^b	0.06**	0.06**	0.01	0.04**	0.04**	0.02	-0.01	0.01	0.09**	0.07**	0.04**	0.06**	0.04

**p<.01, ^a: 남학생 1, 여학생 2, ^b: 아버지 1, 어머니 2

가입($r=.09, p<.01$), 가족규칙($r=.07, p<.01$), 자녀와 활동($r=.03, p<.01$), 부모의 기대($r=.06, p<.01$)에 있어서는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의 관여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의 각 과목별 학업효능감과 내적동기는 .16에서 .72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영어 과목의 학업효능감과 동기는 .72, 수학 과목의 학업효능감과 동기는 .68로 높은 상관관계($p<.01$)를 나타냈다. 국어의 경우 .34 ($p<.01$)로 수학과 영어에 비해 다소 낮은 상관이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성별과 학업효능감 및 내적동기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수학효능감과 성별($r=-.15, p<.01$), 수학 내적동기와 성별($r=-.11,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여학생들의 수학효능감 및 동기가 남학생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음을 시사했다. 반면에 국어효능감과 성별($r=.03, p<.01$), 영어내적동기와 성별($r=.04,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의 국어효능감과 영어내적동기가 남학생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각 하위 개별 변수들 간의 단순 상관의 결과이므로 해석에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정준상관분석을 통해 내적 동기 및 학업효능감 변인들과 부모 관여 변인들의 종합적인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Wilk's λ 계수를 이용한 정준상관분석 결과, 학업효능감과 부모관여 변인 간 산출 가능한 3개의 쌍을 모두 포함한 카이제곱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chi^2(20)=658.15, p<.001$), 첫 번째 쌍을 제외한 검증값 또한 유의하였다($\chi^2(10)=21.69, p<.05$). 그러나 이후의 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제 1, 2 정준변인쌍의 정준상관계수는 각각 .32, .05로 나타났다. 첫 번째 정준함수의 경우,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76),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72), 학부모 단체활동 참여(-.57)가 학업적 자아효능감을 설명하는데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관여행동은 특히 수학(-.85)과 영어(-.82) 자아효능감을 가장 높게 설명하며 국어과목에 대한 자아효능감(-.37)이 그 뒤를 따랐다. 두 번째 정준함수는 제 1 정준함수로 설명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변량 중에서 선형결합간의 상관이 가장 큰 관계를 도출한 값으로 구성되어있다. 부모관여 중에서는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65)과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46)가 가장 높은 관계를 보였으며, 학업적 자아효능감 중에서는 국어과목에 대한 자아효능감(.78)에 가장 높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부모 관여 행동 변인군 각각의 상대적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준부하량과 정준변형계수, 설명량 및 중복지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표 5>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부모 관여 행동 변인군 간의 정준상관 분석결과

	제 1 정준함수		제 2 정준함수	
	정준 부하량	정준 변형계수	정준 부하량	정준 변형계수
학업적 자아효능감				
수 학	-.85	-.62	-.31	-.69
영 어	-.82	-.57	.33	.32
국 어	-.37	-.01	.78	.88
정준상관계수 R^2 설명량	.51		.27	총 합= .78
중복지수	.05		.01	총 합= .06
부모 관여				
학교/부모간 연락(로그변환)	-.30	-.06	-.01	-.01
학생문제행동 연락(로그변환)	.07	.10	.01	.02
학부모 단체활동 참여	-.57	-.32	-.28	-.42
가족규칙	-.29	-.09	.03	-.07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76	-.51	.65	.93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72	-.53	-.46	-.62
정준상관계수 R^2 설명량	.27		.12	총 합= .39
중복지수	.03		.01	총 합= .04
정준상관계수	.32		.05	

내적동기와 부모관여 변인 간 정준상관분석 결과, 산출 가능한 3개의 쌍을 모두 포함한 카이 제곱검증은 통계적으로 의미하였으나($\chi^2(18)=507.21, p<.001$), 이후의 검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제 1 정준변인쌍의 정준상관계수는 .28로 나타났다. 첫 번째 정준함수는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76),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72), 학부모 단체활동 참여(-.49), 학교부모간 연락(-.34), 가족규칙(-.32) 순으로 내적동기를 설명하는데 기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관여행동은 특히 수학(-.77)과 영어(-.75) 자아효능감을 가장 높게 설명하며 국어과목에 대한 자아효능감(-.57)이 그 뒤를 따랐다. <표 6>는 내적동기와 부모 관여 행동 변인군 각각의 상대적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준부하량과 정준변형계수, 설명량 및 중복지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표 6> 내적동기와 부모 관여 행동 변인군 간의 정준상관 분석결과

	제 1 정준함수	
	정준부하량	정준변형계수
내적 동기		
수 학	-.77	-.54
영 어	-.75	-.49
국 어	-.57	-.39
정준상관계수 R^2 설명량	.49	
중복지수	.04	
부모 관여		
학교/부모간 연락(로그변환)	-.34	-.12
학생문제행동 연락(로그변환)	.16	.20
학부모 단체활동 참여	-.49	-.22
가족규칙	-.32	-.12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76	-.52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72	-.53
정준상관계수 R^2 설명량	.26	
중복지수	.02	
정준상관계수	.28	

4. 부모의 관여 행동이 학생 자녀 특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관여 행동이 중학생의 과목별 학업효능감과 내적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6개의 부모관여행동 변수를 넣고 각 과목별 효능감과 내적동기에 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1)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예측하고자 실시한 3개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이 모형이 수학($F(6, 5962)=78.58, p<.001$), 영어($F(6, 5975)=72.88, p<.001$), 국어($F(6, 5966)=16.20, p<.001$)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줬다. 분석결과, 부모의 관여행동 변인은 학생의 수학효능감 변량의 총 7%, 영어효능감 변량의 총 7%, 국어효능감 변량의 총 2%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부모의 관여 행동별로 살펴보면,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과 부모의 교육 기대는 수학효능감($\beta=0.12, p<.001$; $\beta=0.15, p<.001$), 영어효능감($\beta=0.15, p<.001$; $\beta=0.13, p<.001$), 국어효능감($\beta=0.09, p<.001$; $\beta=0.04, p<.01$)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학부모의 단체활동은 수학($\beta=0.09, p<.001$), 영어($\beta=0.07, p<.001$) 학업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했으나 국어

학업효능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락은 수학 학업효능감과 국어효능감($\beta=-0.04$, $p<0.01$; $\beta=-0.03$, $p<0.05$)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는데, 즉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와 학교간의 접촉이 적을수록 수학 및 국어의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규칙은 수학효능감($\beta=0.04$, $p<0.01$)을 유의미하게 설명했는데 즉, 가족 규칙이 많을수록 수학효능감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2) 중학생의 내적 동기

중학생의 과목별 내적동기를 예측하고자 실시한 3개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이 모형이 수학($F(6, 5965)=49.35$, $p<0.001$), 영어($F(6, 5963)=46.81$, $p<0.001$), 국어($F(6, 5962)=27.44$, $p<0.001$)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줬다. 분석결과, 부모의 관여행동 변인은 학생의 수학 내적동기 변량의 총 5%, 영어 내적동기 변량의 총 4%, 국어 내적동기의 변량의 총 3%를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부모의 관여 행동별로 살펴보면,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과 부모의 교육 기대는 수학($\beta=0.10$, $p<0.001$; $\beta=0.12$, $p<0.001$), 영어($\beta=0.12$, $p<0.001$; $\beta=0.11$, $p<0.001$), 국어($\beta=0.09$, $p<0.001$; $\beta=0.08$, $p<0.001$) 내적동기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학생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락은 수학($\beta=-0.05$, $p<0.001$)과 영어($\beta=-0.04$, $p<0.01$) 내적동기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여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와 학교간의 접촉이 적은 학생일수록 수학과 영어의 내적동기가 높음을 시사하였다. 마찬가지로 학부모의 단체활동은 수학($\beta=0.06$, $p<0.001$), 영어($\beta=0.05$, $p<0.001$) 내적동기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여 학부모의 단체활동 참여가 높을수록 수학과 영어의 내적동기가 높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가족규칙의 경우, 수학동기($\beta=0.04$, $p<0.01$)와 국어동기($\beta=0.3$, $p<0.05$)에 영향을 주었으며, 학교와 부모간 연락은 국어동기($\beta=0.05$, $p<0.01$)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과목별 자기효능감 및 내적동기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수학 학업효능감	영어 학업효능감	국어 학업효능감	수학 내적동기	영어 내적동기	국어 내적동기
학교와 부모간의 연락	0.01	0.02	0.01	0.02	0.01	0.05**
학생문제행동에 대한 연락	-0.04**	-0.01	-0.03*	-0.05***	-0.04**	-0.02
학부모 단체 활동 참여	0.09***	0.07***	0.02	0.06***	0.05***	0.02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0.12***	0.15***	0.09***	0.10***	0.12***	0.09***
가족 규칙	0.04**	0.01	0.02	0.04**	0.01	0.03*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0.15***	0.13***	0.04**	0.12***	0.11***	0.08***
R^2	0.07	0.07	0.02	0.05	0.04	0.03

* $p<0.05$, ** $p<0.01$, *** $p<0.001$

IV. 논의

본 연구는 미국의 ELS2002 문항을 기초로 개발된 한국교육중단연구의 부모 관여에 대한 문항들을 활용하여 부모의 관여가 한국 청소년들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의 어떠한 구체적인 관여행동이 청소년의 그러한 특징들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유사한 문항을 사용하여 동일한 주제를 연구했던 미국의 연구결과(Fan & Williams, 2010)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부모의 관여 행동과 청소년 학업동기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관련 연구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부모와 청소년 특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부모 관여와 청소년 학업 특징에 대한 문화적 비교

우리나라 부모들은 학교와 부모간의 연락 혹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연락을 연 평균 1회 미만으로 보고한데 반해서 미국의 부모들은 연 평균 1.3회 정도로 나타나 미국부모가 우리나라 부모에 비해 학교와의 연락 횟수가 상대적으로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단체 활동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부모 모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부모의 경우 평균 0.92(SD=1.32)인데 반해 미국 부모는 평균 0.28(SD=0.31)로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부모들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가정생활에 관한 부모의 관여 행동에 대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 가정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가지 규칙 중 3개 이상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연구에서 제시한 규칙 중 '컴퓨터하기'가 제외된 4개의 규칙 중 약 3개의 규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부모와 자녀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12가지 활동에 대해 연 평균적으로 약 19회의 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 활동별로는 약 1~2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7가지 활동에 대해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는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활동은 평균적으로 '가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3.08, SD=0.56).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기대에 있어 우리나라 부모와 미국 부모들은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자녀가 대학교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의 비교는 한국 부모와 미국 부모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한국의 부모 관여와 미국의 부모 관여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청소년들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를 비교해보면, 연구 대상이 된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전체 4점 척도 중에서 2.6 정도(2점 '그렇지 않다'와 3점 '그렇다'의 사이)로 보고하여 중간 정도의 학업적 효능감과 내적 동기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 청소년들의 경우도 학업적 효능감과 내적 동기에 있어 우리나라

라 청소년들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2.34~2.73). 마지막으로 수학 과목의 학업효능감과 내적 동기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나 남학생들이 수학에 있어 더 높은 수행을 하고 더 높은 자아효능감, 자아개념을 가진 반면 더 낮은 불안을 가진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임은정, 1998; Pajares & Miller, 1994)과 일치됨을 시사하였다.

2. 부모의 관여와 청소년 학업 특징 간의 문화적 비교

1) 학교교육 영역의 부모 관여

학교와 부모간의 연락이라는 부모 관여행동이 자녀의 학업적 자아효능감 및 내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연락하는 그 '행위'보다는 연락의 '내용'이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학교와 부모간의 연락은 국어과목에 대한 내적동기를 제외한 다른 특성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하지만 문제행동에 대한 연락은 수학효능감과 내적동기, 국어효능감, 영어 내적동기를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즉, 문제행동에 대한 연락이 많을수록 상기한 학업적 자아효능감이나 내적동기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미국의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에도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학교간 연락은 수학과 영어과목에 대한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 모두에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이 나타났으나, 부모가 학교에 연락하는 관여행동은 자녀의 학업동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학교교육 영역의 부모 관여 행동 중 학부모 단체활동 참여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구결과가 상이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부모의 단체활동 참여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학과 영어 과목의 효능감과 내적 동기에 대한 강력한 예언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학교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는 부모의 자녀일수록 학생들의 자신감이 높고(Marchant et al., 2001), 자녀의 내적 동기도 높아진다(Grolnick & Slowiaczek, 1994)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Fan과 Williams(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단체활동 참여가 미국 청소년들에게는 수학효능감만을 예언($\beta=0.02$, $p<0.05$)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부모가 학교 활동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성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자녀의 또래 친구들과의 비교가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외적동기가 높아짐에 따라 내적 동기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하였다.

2) 가정생활 영역의 부모 관여

가정생활에서 부모의 관여행동과 자녀의 효능감 및 내적동기에 대한 연구결과는 미국의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은 자녀의 모든 학업적 효능감과 내적동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미국의 경우 자녀와의 활동은 수학효능감을 정적으로 예언($\beta=0.02$, $p<0.05$)하는데 반해 영어 내적동기를 부적으로 예언($\beta=-0.07$, $p<0.001$)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 대상의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Fan과 Williams(2010)는 미국의 연구 결과에 대해 부모와 자녀는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 결국 자녀의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반해 심리적으로 독립하고자하며 또래와의 활동을 즐기려는 청소년들의 발달특성이 내적 동기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미국 연구에서의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10학년인데 반해 우리나라 연구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와의 다양한 활동 경험이 오히려 내적 동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부모의 관여 행동이 자녀의 발달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선행 연구결과(Grolnick & Slowiaczek, 1994)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외의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부모관여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해 왔으나 학업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의 학업동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가정생활에 관한 부모의 관여행동 중 가족규칙은 수학과목의 학업효능감과 내적동기, 국어과목의 내적동기를 정적으로 예언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는 규칙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예컨대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가족규칙은 영어 내적동기를 부적으로 예언하고($\beta=-0.08$, $p<0.001$), TV시청에 대한 규칙은 수학 및 영어 내적동기를 정적으로 예언하는 것($\beta=0.03$, $p<0.01$; $\beta=0.07$, $p<0.0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가족규칙에 대한 세부 내용에 따라 학업동기와 다른 관련성을 가질 수 있으나 두 문화권 모두에 있어 가족규칙은 수학교과목의 내적 동기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국어나 영어와 같은 언어학습에 비해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 상당한 학습시간을 투입해야하는 수학교과목의 특성이 가족규칙과의 독특한 관련성을 창출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이 주제는 추후 연구에 대한 흥미로운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부모의 교육적 기대

마지막으로 부모 관여행동 중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은 청소년들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에 강력한 정적 예언변인임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연구결과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미국 연구에서도 다양한 부모의 관여행동 중에서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자녀의 과목별 효능감과 내적동기를 예언하는 가장 강력한 영향변인이었다. 부모가 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가 학생의 자신감에 강력한 영향변인이라는 이전의 연구결과(Marchant et al., 2001)를 고려해 볼 때, 부모의 교육적 가치 및 기대가 부모의 관여 행동을 통해 자녀에게 전해져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학업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관여 행동이라는 변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을 시도하고, 동시에 미국의 유사한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문화간 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부모의 몇몇 관여 행동들이 청소년의 학업적 자아효능감과 내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설명량이 매우 작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적 동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모관련 변인 혹은 다른 관여 행동들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의철 (2004).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 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덕 (2001). **부母的 學習參與형태가 子女의 學業動機에 미치는 影響**.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백 · 김준엽 (2009). 學業 성취 相關 요인과 自覺性감을 매개로한 部母의 教育기대와 學業參與가 學業 스트레스에 미치는 效果에 相關 中斷적 分析, **교육심리연구**, 23(2), 389-412.
- 박영신 (2004). **韓國의 청소년 文化와 部母자녀關係: 토착심리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 박영신 · 김의철 · 정갑순 (2004). 韓國 青少年의 部母자녀關係와 成취에 對한 中斷研究: 自覺性감과 成취動機를 中심으로. **韓國심리학회지: 社會문제**, 10, 37-59.
- 박외자 (2010). **청소년이 인식하는 部母의 學習參與태도가 進路포부에 미치는 影響 : 자기주도적 學習, 學業효능감, 結果기대를 中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점숙 (2003). **부母的 양육태도가 아동 및 청소년의 自覺性감에 미치는 影響**.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 (1998). **부母的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自覺性감에 미치는 影響**.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영 (2010). **청소년의 進路결정에서 청소년의 타인 參與 要求 方式과 部母의 參與 方式에 相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수용 · 김경근 (2008). 部母의 教育적 參與가 學業성취에 미치는 影響 - 家庭배경의 影響을 中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1), 39-66.
- 선혜연 · 김계현 (2008). 청소년 進路의사결정에서 部母와 子女의 特性에 따른 部母의 參與方式 差이. **아시아교육연구**, 9(2), 161-179.
- 신종호 · 진성조 · 김연제 (2010). 自覺된 部母의 學業지원, 成취기대, 일상통제가 學業성취 수준에 따라 자기결정성 動機에 미치는 影響. **교육심리연구**, 24(1), 121-137.
- 윤미선 · 홍창용 (2006). 中學生의 部母 學習參與 自覺과 교과흥미 및 교과성적의 關係. **교육방법연구**, 18(2), 139-155.
- 이미옥 (2003). **子女가 自覺한 部母의 學習參與형태와 學業動機와의 關係**.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상옥 (2003). **中學生이 自覺한 部母의 양육태도와 職業가치觀간의 關係**.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수 (2003).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 서울지역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 (1998). **학업동기 및 부모행동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은정 (1998). **자기 효능감이 수학적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라 · 원유미 (2001).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결정유형과 아동 ·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16(1), 157-178.
- 조혜영 (2008). 학습자의 귀인성향과 부모의 학습참여방식이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상담평가연구*, 1(1), 73-88.
- 최귀림 (2000). **실업계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자아개념, 가치관 간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2005). The evolution of social cognitive theory. In K. G. Smith & M. A. Hitt (Eds.), *Great minds in management* (pp. 9-3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igner, J. J. (2006).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7th ed.). New Jersey: Pearson Prentice-Hall.
- Domina, T. (2005). Leveling the home advantage: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parental involvement in elementary school. *Sociology of Education*, 78, 233-249.
- Epstein, J. L. (1995). School/family/community partnerships. *Phi Delta Kappan*, 76, 701-712.
- Fan, W. & Williams, C. M. (2010). The effect of parental involvement on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engagement and intrins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y*, 30(1), 53-74.
- Fan, X.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growth modeling analysis.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70(1), 27-61.
- Fan, X., & Chen, M.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 1-22.
- Farver, J. M., & Lee-Shin, Y. (2000). Acculturation and Korean-American children's social and play behavior. *Social Development*, 9, 316-336.
- Faver, J. M., Narang, S. K., & Bhadha, B. R. (2002). East meets West: Ethnic identity, acculturation, and conflict in Asian Indi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 338-350.
- Fishel, M., & Ramirez, L. (2005). Evidence-based parent involvement interventions with school-aged children.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0, 371-402.
- Grolnick, W. S., & Slowiaczek, M. L. (1994). Parents' involvement in children's schooling: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and motivational model. *Child Development*, 65, 237-252.

- Harter, S. (1981). A New Self-Report Scale of Intrinsic Versus Extrinsic Orientation: Motivation and Informational Compon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00-312.
- Hill, N. E., & Craft, S. A. (2003). Parent-School Involvement and School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 74-83.
- Izzo, C. V., Weissberg, R. P., Kaspro, W. J., & Fendrich, M. (1999).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teacher perceptions of parent involvement in children's education and school performan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6), 817-839.
- Jeynes, W. H. (2005). A meta-analysis of the rel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to urban elementary school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Urban Education, 40*, 237-269.
- Marchant, G. J., Paulson, S. E., & Rothlisberg, B.A. (2001). Rela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family and school contexts with academic achievement. *Psychology in the Schools, 38*(6), 505-519.
- Pajares, F. & Miller, M. D. (1994). Role of self-efficacy and self-concepts beliefs in mathematical problem-solving: a path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 193-203.
- Phillips, S. D., Blustein, D. L., Jobin-Davis, K., & Finkelberg White, S. L. (2002). Preparation for the school-to-work transition: The views of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1*, 1-15.
- Pintrich, P. R., & De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33-40.
- Powell-Smith, K. A., Stoner, G., Shinn, M. R., & Good, R. H. (2000). Parent tutoring in reading using literature and curriculum materials: Impact on student reading achievement. *School Psychology Review, 29*, 5-27.
- Russell, S. T., Crockett, L. J., & Chao, R. (Eds.) (2010). *Asian American parenting and parent adolescent relationships*. New York: Springer.
- Schunk, D. H., & Zimmerman, B. J. (2006). Competence and control beliefs: Distinguishing the means and ends. In P.A. Alexander & P.H. Winne (Eds.), *Handbook of educational psychology* (2nd ed.) (pp. 349-367). Mahwah, NJ: Erlbaum.
- Sheldon, S. B., & Epstein, J. L. (2005). Involvement counts: Family and community partnerships and mathematics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8*, 196-206.
- Sirvani, H. (2007). Effects of teacher communication on parents' attitudes and their children's behaviors at schools. *Education, 128*, 34-47.

- Uba, L. (1994). *Asian Americans, personality patterns, identity, and mentalhealth*. New York: Guilford Press.
- Yan, W., & Lin, Q. (2005). Parent involvement and mathematics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9, 116-127.
- Ying, Y. W., Comb, M., & Lee, P. A. (1999). Family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of Asian American adolesc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5, 350-363.

* 논문접수 2010년 11월 1일 / 1차 심사 2010년 12월 9일 / 2차 심사 2011년 2월 28일 / 게재승인 2011년 3월 2일

* 선혜연(宣惠娟, Seon, HyeYon):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초심상담자를 위한 집단상담', '상담과 심리검사', '청소년 진로선택과 부모의 영향', '청소년 진로상담' 등이 있다.

* E-mail : hyseon@konyang.ac.kr

* 황매향(黃梅香, Hwang, MaeHyang):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으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청소년 발달문제와 상담', '상담과 심리검사',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학업상담', '초등교사를 위한 문제행동 상담 길잡이' 등이 있다.

* E-mail : maehyang@ginue.ac.kr

* 정애경(鄭愛敬, Jung, AeKyung):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상담심리전공 박사과정 학생으로 재학 중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진로미결정 및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이 있다.

* E-mail : ajhvc@mail.missouri.edu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Seon, HyeYon*

Hwang, MaeHyang**

Jung, Ae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and to compare this results with those of American similar study using the data of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2002(ELS2002). To do this, we examined whether various parental involvement behavior predicted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self-efficacy towards maths, English and Korean and intrinsic motivation towards maths, English and Korean using data from the Korean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KELS). The results show that most parental involvement behaviors are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 academic self-efficacy and intrinsic motivation, especially parents' educational aspiration for their children and parents' participation in activities with children had strong positive effects on all six motivational outcomes. These results are almost like the ones of American similar study(Fan & Williams, 2010). Lastly discussion is focused on the meaning of these findings and th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ies.

Key words: parental involvement, involvement behavior, academic self-efficacy, intrinsic motivation

* Corresponding Author, Konyang University

** Professor,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Doctoral candidate student,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